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뒷담화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헐뜯음. 또는 그런 말.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뒷담화'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헐뜯음. 또는 그런 말.

뒷담화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뒷담화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뒷다마 사전 표기 요약	—	—	—	—	—	●→
뒷담화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뒷다마
  20세기
- 뒷담화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뒷다마, 뒷담화

뒷담화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말의 구성과 어원

‘뒷담화’는 20세기부터 ‘뒷담화’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뒷담화’는 보이지 않는 배후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뒤’와 명사 ‘담화’가 결합하면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이다.

문헌 속의 뒷담화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뒷다마, 뒷담화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뒷다마, 뒷담화

출처 1976 조선일보 2월 3일 1면

용례 01

문헌 용례

뒷다마 친다 (애인 뺏는 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76 조선일보 2월 3일 1면

용례 02

문헌 용례

뒷다마 굴린다, 통빡 굴린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 과장하는 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97 한겨레 9월20일 12면

용례 03

문헌 용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말로 ‘뒷다마’를 까는 거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99 경향신문 6월 8일 27면

용례 04

문헌 용례

주제 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해 옮긴「뒷담화」게시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뒷담화에 관한 주석

‘뒷담화’의 ‘담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일본어 ‘たま(다마)’가 변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다. ‘たま(다마)’는 구슬이나 공처럼 둥근 물건을 가리키는데, 당구공 역시 둥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당구공을 ‘たま(다마)’라고 한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당구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미 ‘당구를 치다’를 ‘다마를 치다’라고 표현한 예가 보인다. 당구를 칠 때 앞에 놓인 공을 바로 맞히지 않고 뒤로 돌아가 그 공의 뒷부분을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뒷다마 치다’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이 은어가 되어 197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뒷다마 치다’가 ‘애인을 빼앗다’라는 의미로, ‘뒷다마 굴리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 과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뒷다마 치다’, ‘뒷다마 까다’, ‘뒷다마하다’ 등의 표현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헐뜯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공의 앞면이 아닌 뒷면을 맞히는 행위가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당사자가 없을 때 뒤에서 험담을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뒷담화’와 관련된 또 다른 어원설은 ‘뒷담화’의 ‘담화’가 머리를 뜻하는 일본어 ‘あたま(아타마)’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あたま(아타마)’를 줄여 ‘다마’라 하고 그 앞에 ‘뒤’를 결합하여 ‘뒷다마’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부터 ‘머리’를 ‘아다마’라고 표현한 예가 보인다. 다만, ‘あたま(아타마)’를 줄여 ‘다마’라고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굳이 ‘뒷다마’라는 합성어를 만들면서 줄임말을 사용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당구와 관련하여 이미 ‘뒷다마’가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뒷담화’가 당구 용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광복 이후 일본어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다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어들이 일상생활에서 퇴출되었는데, 고유어와 결합한 합성어이기는 하지만 ‘뒷다마’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 때문인지 1990년대부터 ‘뒷다마’를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연상되는 ‘뒷담화’로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표현이 방송과 출판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뒷담화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우진 2018 《단어의 사연들》 웨일북
- 이진원 2007 [이진원 기자의 바른말광] 뒷담화? 뒷다마? 뒷말! 《부산일보》 입력 2007년 01월 30일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뒷담화의 뜻과 역사